

# 지금 이시각

2024. 10 TIME NOW

스물여덟번째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 아이들이 있는 풍경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그림1\_어린이집 나들이, 2024, 디지털 페인팅

4월

진천 덕산 수변공원

오전 10시 30분. 어린이집 나들이 시간이다.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 아이들, 어쩜 이렇게 귀엽냐!

내 얼굴은 이모미소로 가득 찬다.

앞에서 길을 가는 여자가 멈춰서서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한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활짝 웃는다.

다른 아이들이 “oo이 엄마다!” 라고 말한다.

7월

울산 주전 몽돌 해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나타났다.

옷통은 벗었고 흰색 줄 3개가 옆라인에 있는 검정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있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 드러난 까무잡잡한 피부가 인상적이다.

햇님의 축복을 한껏 받은 아이들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들고 있던 태권도 학원 가방을 몽돌 해변에 던져버리고 바다로 돌진한다.

앗! 지금 아직 바다는 차가운데……

참 대단한 아이들! 한 두 번 이렇게 놀아 본건 아닌 것 같다.

영화 <친구>가 연상되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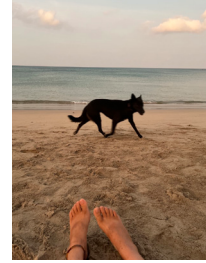
파릇파릇함, 생명, 기운의 느낌은 이런건가 싶기도 했다. 🐾





그림2\_해변의 아이들, 2024, 디지털 페인팅

## 서른춘기 마주 #2



마주(Maju)

뒤늦게 정체성 없음을 알게 된 서른춘기

### 4. 엄마 천만원만 빌려줘

어느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터달고 잘 달리다가 다시 바다 한가운데 멈추어 빙글빙글 돌며 방향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근데 웬지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원장.

노트북을 열고 미술 사이트에 올라온 학원 매매 글에 메일을 보내고 무작정 방문했다.

이문동 은나무 미술

작은 초등학교 맞은편에 또 작고 귀여운 미술교습소가 있었다.

규모가 큰 학원에서는 여러 번 일해봤지만 작은 교습소는 처음이었다.

90년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듯 하기도 하면서

(마주는 유년시절 미술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다)

웬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다.

나는 어떤 스파이처럼 궁금한 것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학생 수, 원비, 권리금, 월세 등등

썸 - 했다. 나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썸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학원 매매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다음날은 다른 교습소에 갔다. 홍제.

초등학교 바로 앞 작고 귀여운 간판을 가진 하양새 미술교습소

전면의 통창으로 학교 정문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교습소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임신한 원장님은 이미 만삭이었다.

내일 아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배를 가지고 8월 땀을 뻘뻘 흘리시는 원장

님은 나보다 겨우 한 두살 언니였다.

하양새가 너무 좋은데 출산일이 다가와 눈물을 머금고 양도하신다는 원장님은 친절하게도 모든 부분을 잘 설명해주셨다.

월세 60만원, 제시하신 권리금은 9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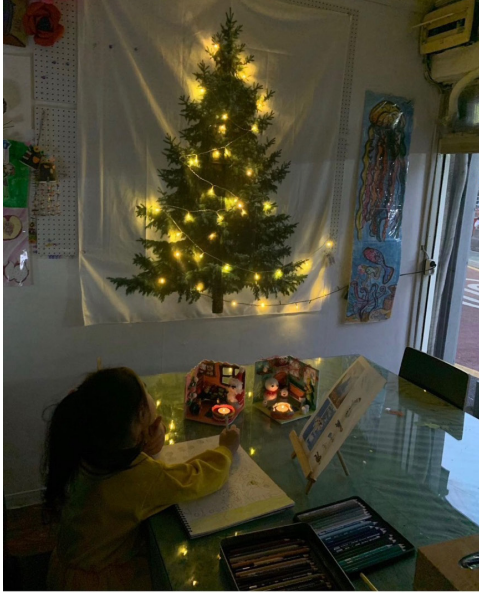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이 빨라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천만원만 빌려줘.





♡ 26



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이 시간 🥰 ... 더 보기

2019년 12월 24일

## 5. 하양새는 이제 제겁니다.

나에게 천만원이라는 시드머니가 생겼다.

900이었던 권리금을 깎아 8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나머지 돈으로는 첫 달 월세와 책걸상,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약 2주일의 인수 시기를 거치며 스무명 남짓의 아이들을 만났고, 동네 성향과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나갔다.

마주는 그 동안 수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과 신축 아파트들이 어지럽게 섞여있는 이 동네의 아이들은 해맑고, 얼굴에 순수한 어린아이만의 밝은 기운이 빛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

새로 온 선생님이 낯설지도 않은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아이들이었다.

사업자등록, 통신사 변경, 교육청 업무 등등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시간들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야 할 때였다.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좀 준비중이라 이번 달까지만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블라블라블라

원장 선생님은 서운한 기색은 감추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내 교습소에 수업이 없는 금, 토요일만이라도 수업해주기를 원하셨다.

나에게는 좋은 조건이었다.

아직 무작정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위험했고, 대형프렌차이즈 학원의 영업방식, 커리큘  
럼을 획득한다는 것은 이제 막 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월화수목은 홍제, 금토는 목동으로 갔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9평짜리 작은 교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이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자니 새삼 처음 아이들과  
수업을 했을 때 처럼 긴장되었다.

2019년 8월 늦여름이었다.

그때 28살 마주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 긴장감을 티내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했는  
지 기억한다.

밝은 햇살과 함께 마주의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6. 코로나 이 개새끼야

월세는 60만원, 공과금 약 10만원.

그리고 원비는 주 2회 9만원

아 뭐야. 8명만 유지하면 일단 손해는 아니잖아. ez~~~

처음 인수받은 아이들의 수는 15명이었다.

작고 소중한 내 학생들. 우리는 금방 가족같은 사이가 되었다.

나는 블라인드를 활짝 열고 ‘우리 좀 보세요~~~ 우리 재밌는거해요~!!’

보란듯이 웃고 떠들며 수업했고, 학교 앞에 새로운 선생님이 온 게 궁금한 엄마들은 학원 앞을 기웃거렸다.

조금씩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속도는 느렸지만 신입생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됐지만 그보다 열정이 더 컸고, 매일 터져나오는 도파민에 힘들긴 커녕 행복할 지경이었다.

소소한 나의 하양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말이다.

그리고 찾아온 개새끼.

불청객은 왜 좋은 날에 찾아올까.

막 원생 수 서른명을 찍었을 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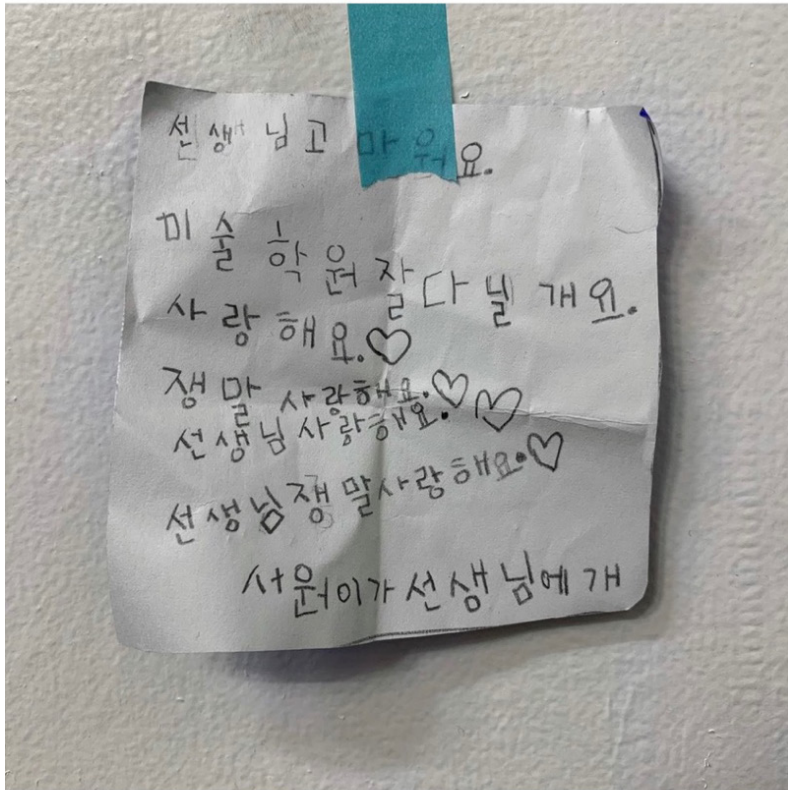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지역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볼 때였다.

멋진 모험이 시작된 지 겨우 반년째였다.

나에게 유난히 춥게 느껴졌던 그 겨울.

지금은 잘 버텼다고 회상하지만

ㅅ | 발 인생아 나한테 왜그래? 하며 남 탓 내 탓 인생 탓 온갖 탓 다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때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된다. 🐱



♡ 23    Q 2    ▼



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정말 우울하네요 🙄 😞

#강제휴가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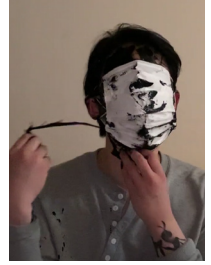


댓글 모두 보기

2020년 2월 24일



## 별 일없이 살지만



김 희 진  
노동자

별 일없이 살지만 그렇지 아니한 인생을 바라며 사는 것, 또는 그렇게 걷는 것이 익숙한 듯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이 무척 비참하다. 자유롭다는 인상을 그다지 느껴본적 없으면서 그것을 좇느라 발바닥이 모두 뜯어져 더이상 어딘가 발을 딛는 것이 두려운 미물이라. 정말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몸에 상처를 새기거나 피부 안으로 욕여넣는 것이 익숙한 철새와도 같다. 목적지가 달리 정해져있지 않는 데에도 -차라리 그렇다면 걷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언가 동작하고 있다는 그 인상과 느낌 자체가 그것의 충분한 동력이다. 부조리한 것이 당연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나서는 일과 그것에 관한 의무감이 봉긋한 -또 하나의 부조리와 같은- 흑으로 종아리에 붙어있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시다보면, 가슴이 급하게 뛰는 현재와 그렇지 않았던 과거와 그것을 멈출 미래가 동시에 관찰되는데 마치 물을 위로 내뿜는 분수가 낙하 -또는 죽음-를 고려하지 않고 뛰어올라 그것을 맞이하는 방법이나 과정과 필요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쉬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우울은 쾌를 얻게하는 ‘순간’들을 만드는 것에 능숙한 감각인데, 사적인 해프닝이 인생이나 인격의 전반을 난도질한다는 점에서 희미하게 한 순간의 위력적인 자아를 느끼게 하는 매개나 그 지지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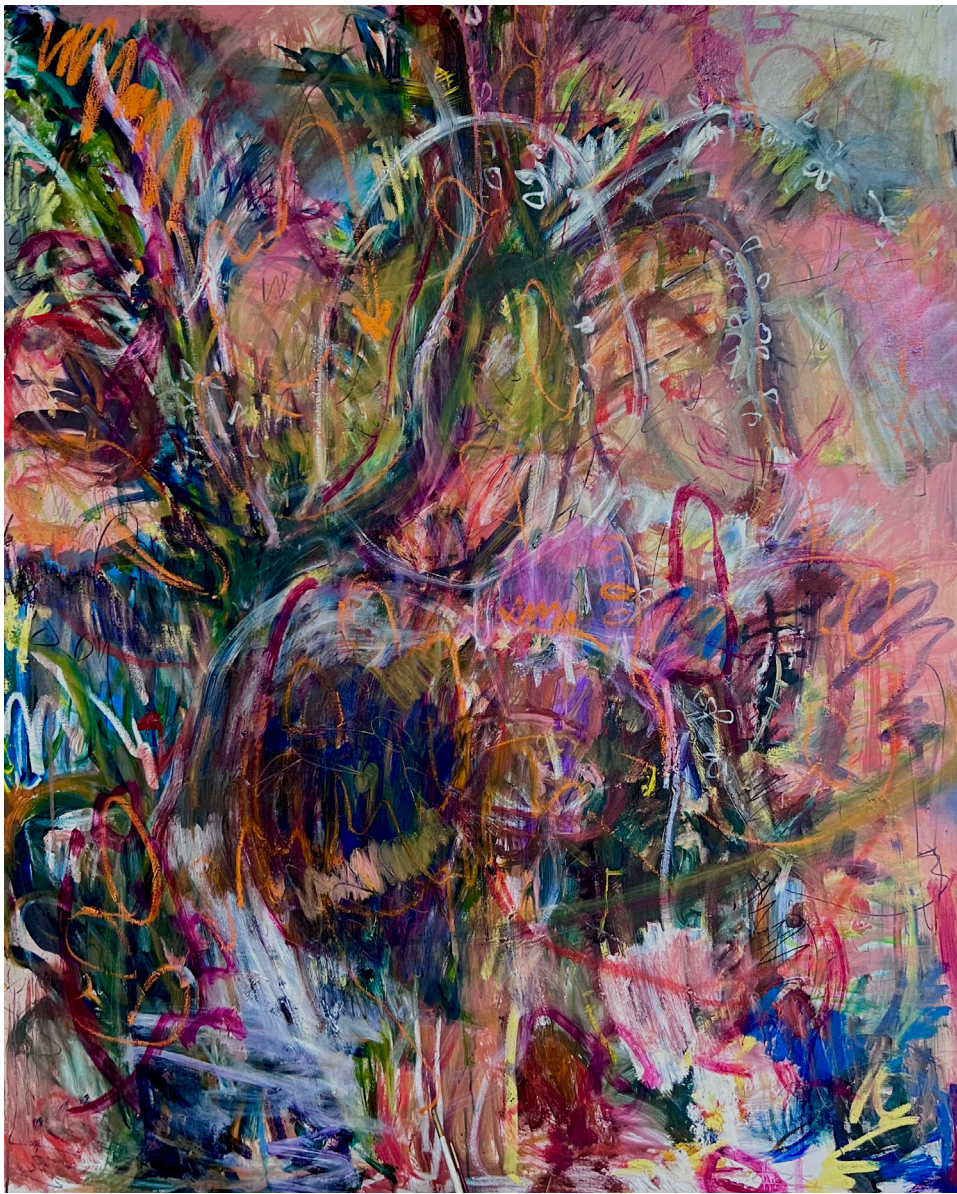
말하자면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어디서 누구든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폐허를 건축하는 과정인 것. 잘게 파손된 내부는 다시 주체에 스미고 변모하여 흐른다. 그 과정이 참으로 흥미로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사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괜찮다고 자위하는 모습을 내비추며 주위를 집중시키는 일로 기억되기를 (거의) 실패하고 마는 작업과 그의 연속을 지켜보거나 행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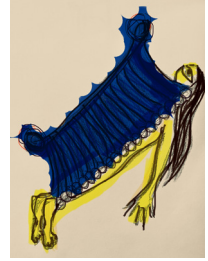


사랑은 나를 모욕하는 것까지도 감싸 안는 능력이다. 여기저기 누구든 붙잡고 포즈를 취한다. 상투적인 선의는 오히려 폭력으로 다가온다. 틀어진 인간이 여기 있다고 외친다. 상대는 나와 당신이다. 물론 폭력이다. 강요에 지친 우리는 사랑의 설득을 배워야 한다. 이름은 생각보다 아주 큰 강박이다. 가령 우리는 관성적으로 ‘등록된’ 이름을 갖고 성별을 판단하거나, 지능을 판단하거나, 재력을 판단한다. 이미 이름은 바람이자, 평가이다. 많은 틀이 씌워져 있다. 이 틀에 갇히면 갇힐 수록, 벗어나면 벗어날 수록 자폐성에 가까워진다. 애석하지만 틀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한 편, 틀에서 박대당한 나는 소리 지른다. 분열로 남고 싶지 않다. 차라리 틀과 공명하려고 노력한다. 남의 잔치에 올라 불을 지른다. 틀을 매일 뒤집을 것이다. 🐱









## 그 곳에 가고싶다 : 자부리켄(Saarbrücken)

X

작가 &amp; 전시기획자

....자부리켄(Saarbrücken) 혹은 자부르클린(Saarbrooklyn)은 내가 독일에서 3년을 보낸 도시였다. 독일의 테크노 음악의 열정을 느낀 공간이었고 내 생애의 유일한 남자친구를 만난 도시였다. 대학 친구들과끼리 자부리켄을 자부르클린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부리켄을 파티와 마약, 구수한 자란트 사투리가 뒤섞인 모던한 국경의 더러운 도시로 기억하였다. 당시 자부리켄보다 더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예술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말이다....

2005년 10월의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 난 자부리켄 역(Saarbrücken Hauptbahnhof)에 도착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난 23살의 나이였고 외국 나이로는 22살이었다. 서아프리카 상아해변 아비장에서 두 달 넘게 머물다가 독일로 왔다. 내 머리 스타일은 레게 헤어스타일로 핑크색 검은색이 뒤섞여 아프리카 사람처럼 묶여 있었고 가나에서 나는 전통 위스키를 연신 비행기에서 마시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비장(Abidjan)에서 에어 모로코 [Royal Air maroc] 를 타고 왔는데 아비장의 공항 경찰에 시달려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누군가가 날 잡아가지 않을까 연신 조마조마했었다.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오는 비행기 안에는 무성으로 흑백영화를 기내 복도에 설치 된 스크린으로 틀어줬고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로 기억하고 있다.

자부리켄 역에서는 동백 선배가 날 픽업했었고 같이 기숙사로 이동했었다. 버스에서 독일 사람들은 날 신기하다는 듯 힐끔힐끔 쳐다봤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난 일본 룸메이트를 만났다. 이름은 야유미로 도쿄에서 온 키가 크고 동양미 넘치는 여자였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니 자기 남자친구가 부키나파소 친구라며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짐을 열어보니 상아해변 공항 경찰이 아니다 다를까 내 말보로 레드를 다 훔쳐갔다. 아.. 아프리카의 열

기를 다시 느꼈다.

자란트 대학에서는 재미없는 독일 학생 문화를 겪었다. 특히 독일어 수업은 필수적으로 들어야했다. 독일어 수업시간에 북아프리카와 근동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성은 넓혀 갔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뭔가 예술적으로 찾고 싶은 세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독일은 매우 추웠고 내가 있는 학생 기숙사는 두트바일러(Dudweiler)에 위치한 구켈스베르크(Guckelsberg)라고 불리는 학생 기숙사였다. 기숙사에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안 타고도 숲을 가로질러 걸어갈 수 있었다. 독일 그림 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이 걸었다고 상상되는 숲처럼 너도밤나무, 자작나무가 심어진 숲길로 난 이 길을 수 십번 지나갔다.

자부리켄은 프랑스와 국경을 둔 국경도시로 독일적인 도시는 아니다. 일단 독일인 기준으로 지저분한 길거리에 터키,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시내 중심에는 카지노처럼 게임아케이드(Spielothek)이 많고 주말에 클럽에 가면 프랑스 애들이 넘어와서 자란트 대학의 학생들을 고시는 데 열중이었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들도 쿠파(Kulturfabrik) 클럽에 가서 프랑스 애들에게 몇 번 헌팅을 당했다. 프랑스 애들은 독

자란트 대학시절 친구들 (2006년)



일애들보다 더 붙임성이 있고 적극적이었다. 난 처음에 마티아스라는 코블렌츠(Koblenz) 출신 금발의 남자와 자부리켄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마티아스와 헤어지고 며칠 뒤 기숙사 숲에서 혼자 거닐다가 그가 자전거를 타고 내 기숙사 숲까지 온 것을 봤다. 그렇지만 난 그를 지나쳐 갔고 나중에 여름이 되어 다시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이미 감정이 사라질 때로 사라졌다.

독일에 살면서 어학을 배우며 친해진 외국인끼리 수다를 종종 떨었다. 자부리켄은 대학 빼고는 딱히 살만한 곳은 아니었다. 외국친구 중 특히 머리가 좋은 아랍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로 소문난 타 대학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다. 마인츠 대학, 쾰른 대학, 베를린 대학, 함부르크 대학, 뮌헨 대학 등등 다 지원서를 넣고 붙으면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했다.

난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마페(Mappe)를 만들 줄 몰랐다. 그래서 자란트 주에 있는 시립 미대에 청강을 하기로 했다. 학교 사무실에서 청강을 하고 싶다는 질문에 어떤 ‘독일 교수?’, ‘어떤 예술?’을 물었고 당시 뭘 해야될지 정보가 부족했다. 그 때 사무실에 있는 교수가 내 그림을 봐줄 수 있다고 했다. 내 그림을 보더니 청강 대신 대학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며 내가 형태를 만드는 수준이 매우 낮아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말을 했다. 나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난 이유에 대한 방법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의아해서 ‘재미있게 들린다’고 독일어로 답하자 교수가 나를 놀라보며 ‘나와는 다시 말을 섞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들었더니 그는 롬자(Rompza)라는 교수로 거이 군주정치 스타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한국 선배한테 들었다. 아무튼 결국 난 독일에서 베를린, 마인츠, 자란트 미대를 돌아다니며 총 5 명의 교수를 만났지만 어느 누구 밑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는 선배 언니가 자란트 미대에 울리케 로젠바흐(Ulrike Rosenbach) 퍼포먼스 수업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로젠바흐 퍼포먼스 수업을 청강했다. 요셉 보이츠 (Joseph Beuys) 제자로 독일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라고해서 들었는데 도대체 요가와 명상을 섞은 듯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독일에 오고 일 년 뒤 독일 생활에 익숙해질 때 난 시내 중심의 레코드 가게에서 한 독일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피티에 관심이 있어 캔 스프레이를 사러 갔는데 가게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서로 영어로 대화를 했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당시 난 학교 철학카페에서 내 개인 전시회를 하고 있었고 그를 초대를 했다. 한스는 내 전시를 보러왔고





폴커가 찍은 질로에서 전시 준비하는 나 (2007년)



폴커가 찍은 내 질로 전시 '파란 방' (2007년)

내가 턴테이블 디제잉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고 한 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집에는 음악을 만드는 방이 따로 있었고 한 가득 레코드가 수북했다. 이후 난 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어느날 나에게 우리가 자부리켄에서 만난 것은 아름다운 인연 (Schönes Schicksal) 이었다고 얘기했다. 사실 디제이의 여자친구의 삶은 고단했지만 여러 파티를 갖고 세계적인 디제이도 만나고 끊임없이 테크노 음악을 들었다. 같이 테크노를 즐겼고 이비자도 가서 해수욕을 즐겼지만, 한스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서 자부리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모든 인생은 사실 자부리켄이었고 나는 예술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 싶었다. 우리는 매 번 싸웠고 난 내가 누구인지 아직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어를 해야 한다는 것 독일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큰 정신적 무게였다.

자부리켄에 살았을 당시 우리는 주로 나우비저피어털(Nauwieser Viertel) 동네 카페나 요하네스(St. Johannes) 광장에 카페나 술집에 자주 들렀다. 자부리켄이란 도시는 독일 게이 레즈비언 운동 역사에서 중요 도시 중 하나로 프랑스 유명 가수 파트리샤 카스(Patricia Kaas)의 오빠가 자부리켄 시내에 게이클럽 샤라잔(Sharazan)을 운영했었다. 시내 중심가 요하네스 광장에 있는 술집과 헤어샵에서 일하는 남성 반 이상은 동네 게이였다. 대학교에서 알게된 친구 마쿠스의 중학교 친구 미샤엘도 게이로 같이 어울려 다닐 땐 항상 게이 비스트로인 ‘히스토리(History)’ 나 아니면 레즈비언 바인 ‘슈티펠(Stiefel)’ 에 갔었다. 당시 한스는 이런 면에는 바이에른 출신답게 보수적이었다. 내 흑인 친구가 RnB 음악을 하는 것에도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고 독일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현실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존중했지만 한스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가끔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행동을 보며 내가 원하는 남자 친구는 좀 더 정의를 좀 더 찾는 사람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디제이 출신인 것은 속일 수 없고 더욱이 한스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참을성이 없고 외교적이지 않다고 종종 핀잔을 해댔지만 내가 한창 20대 중반이라 혈기가 왕성할 때였다.

독일 친구 마쿠스와 자부리켄 식당에서 (2018년)



한스와의 만남에서 깊이 깨달은 것은 사랑을 위해서 남자가 과감히 희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동화에서 자주 심어주는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자기의 사회적 역할과 직책을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 때론 여자가 오히려 남자보다 과감하고 용기있게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게 현실로 일어날지도 우린 장담할 수 없다. 반면 나도 그럴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한수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이기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부리켄을 떠나고 싶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는 남자친구를 위한 관용보다 사실 내 것을 만들려는 사람이었다. 결국 프랑스에 미대가 합격하고 난 독일을 떠났다. 그렇지만 한스는 나를 끝까지 도와줬다. 더욱이 한스의 어머니는 나에게 큰 용기를 준 사람이었다. 내가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할거라는 얘기를 듣고 칸딘스키가 아돌피에를 잠시 가졌던 바이에른의 칼뮌제(Kallmünz)에 데려가야한다고 한스를 압박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지역화가를 소개시켜주며 나의 꿈을 지원해줬다. 난 우리 가족에게서도 받지 못한 응원을 독일 이방인에게 생애 처음을 받았다. 아마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다. 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서로의 유대로 우린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쿠스와 형 친구 미샤엘



한스 어머니가 소개시켜 준 펅크(Penk)에 사는 지역 화가는 나에게 언젠가 그 누군가가 나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훔치려와도 두렵지 않다고 나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지난 삶을 보여줬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에게 미래적 암시였다. 이후 내가 프랑스에 가서 한스에 대항해서 한 지적 재산권 소송은 나를 우울증으로 밀어넣었지만 나의 정당성을 찾아주었다. 이후 수 년동안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어를 훔치며 세상에 여러 형태를 만드는 것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보다 당당히 나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아마 그 펅크의 화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난 이 모든 것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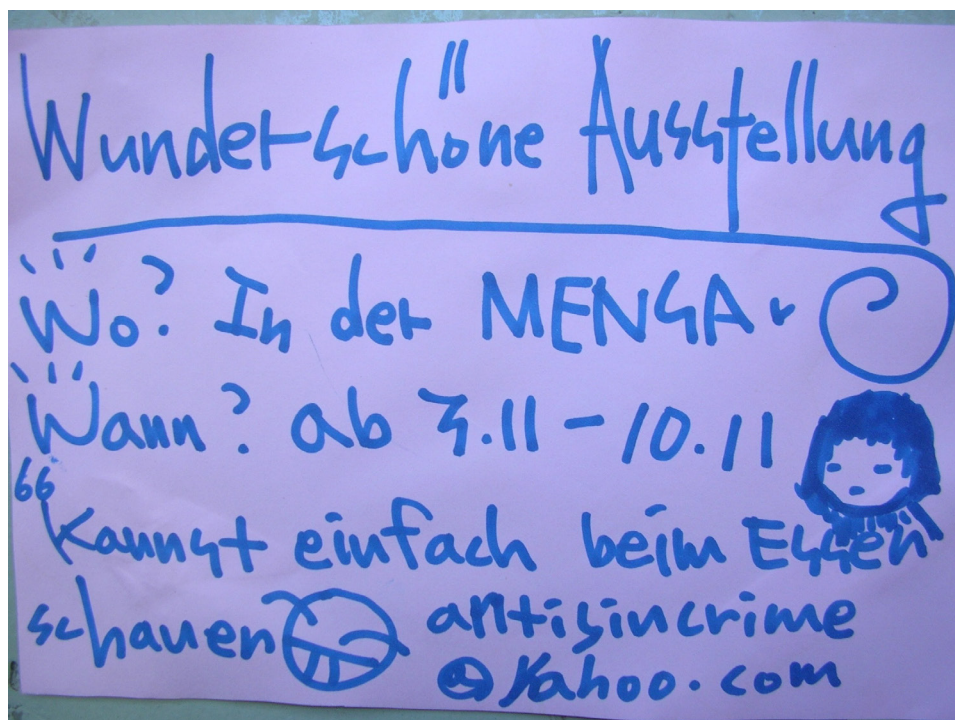
자부리켄의 기억에 마지막으로 자란트 사투리를 구수하게 날리는 친구가 있었다. 내 독일 펅크 친구 엔스 바그너(Jens Wagner)였다. 엔스는 가명으로 네노(Neno)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자를 얼굴보다 머리를 보고 만나는 지적인 펅크 였다. 부모는 교수이고 엔스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다. 엔스는 펅크 파티에 날 자주 초대했고 나는 엔스의 다양하고 독특한 펅크 친구들을 만났다. 엔스를 통해 독일의 좌파 펅크 사람의 생각 그리고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는 내가 자부리켄에서 샤일로(Silo)에서 전시하면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예술을 하는 것과도 일치했다. 나에게 예술은 현실의 돌파구에서 사회적 유토피아로 흘러가고 있었다. 엔스와 나는 종종 만나서 타로 카드를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엔스의 음악실에서 같이 비디오도 찍는 재미있는 해프닝을 만들었다. 훗날 프랑스에 살며 독일에 왔을때 나에게 고백 비슷하게 말을 했지만, 난 이미 그를 거절했었다. 아마도 나는 홀로서기를 완벽하게 한 것 같다.

이후 자부리켄에 클럽을 가면 가끔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자부리켄 도시에서 한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동양인 여친인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었다. 파티에 가면 흔하게 마약을 권유 받았고 난 가끔 즐겼지만, 자부리켄이 나의 과거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미대를 졸업하고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동네 취업을 하였다. 난 서서히 파리의 예술을 보게되고 있었고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탐험하고 있었다. 훗날 내가 프랑스 물루즈 학교에서 부루즈 학교로 더 큰 미대를 가게 되었을 때 물루즈 교수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 난 당신이 더 큰 세계를 보기 늘 원했어요. 앞으로도 당신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요”

나의 가슴은 아직도 더 큰 세계를 향해 여전히 뛰고있다. 앞으로 항해에 예술이 나를 어디로 바래다 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고 느낀다. 🐱





독일 대학교 2006년 학생식당 전시 공고





## 광주비엔날레 후기

오종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1. 비엔날레에 작품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안다.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작품 수가 그리 많은데 단 한 점 마음에 안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비엔날레란 책 한권과 같아서 낱낱의 페이지를 논하기보다 기승전결, 즉 전체적인 묶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또 주제 의식에 대해 작가들이 얼마나 신경써 준비하였는지 정도가 기본 소양인 것 같고, 여기에 추가로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접근하려 노력하였는지 등을 보려는 편이다. 이는 비엔날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면서 나아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생각도 하면서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이하 광비)가 꽤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관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2. 먼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오디오 도슨트(가이드)이다. 이번 도슨트의 경우 별도의 리플렛이나 설명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오직 QR코드를 통해 오디오 가이드로 접속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도슨트를 듣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목록이나 QR을 통해 원하는 작품을 클릭하면 → ② AR(증강현실 : 포켓몬 고를 생각하면 편하다)시스템이 활성화 되며 카메라가 켜진다. → ③ 여기에 아바타를 화면에 비치하라는 지시가 나온다. → ④ 그러면 화면을 클릭하여 아바타를 배치하고 설명을 들어야 한다. 즉 화면에 작품을 선택하면 바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AR기능이 실행되고 아바타를 화면에 배치해야 설명이 나오는 구조다.

2-1. 스마트폰의 화면이 꺼지면 도슨트가 멈춘다. 즉 스마트폰이 일정시간이 지나 화면이 저절로 꺼지면 설명도 저절로 꺼지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다들 한 2~30초 정도 뒤 자동 꺼짐으로 세팅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슨트가 꺼진다는 것이, 일시 정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작품 리스트로 돌아가 버린다. 비유하자면 전시 해설사가 작품 설명 도중 관객이 잠깐 눈을 깜빡였다고 로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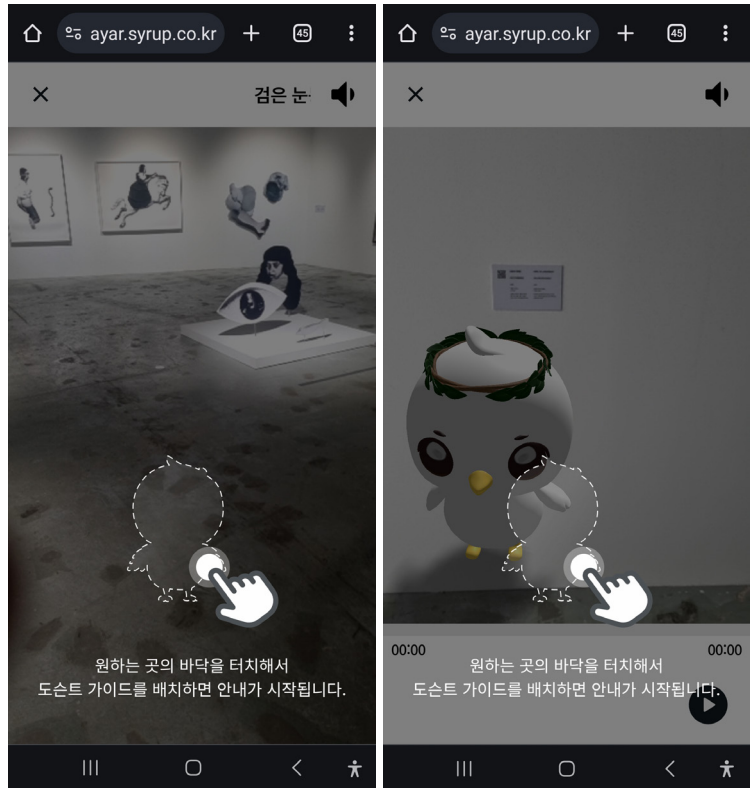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화면을 터치해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핸드폰은 AR기반 카메라 화면이 계속 작동되어 있고, 그 카메라 화면 상에서 아바타가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이다. 즉 카메라가 연동된 만큼 배터리는 빠른 속도로 닳고 있다.

2-2. 억지로 화면을 계속 눌러대며 설명을 다 들었다. 완료 버튼을 누르라고 나온다. 그럼 우리는 바로 내가 직전까지 작품을 클릭한 리스트를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직전의 리스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앱 마음대로 추천리스트라고 다시 1관의 1작품으로 리스트가 올라가 있다. 심지어 바로 클릭도 안되서 “더 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야 리스트를 조종 할 수 있다.

참고로 도슨트 리스트는 각 관마다 페이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1-1, 1-2, 1-3... 5-4, 5-5 식으로 다 때려박았다. 즉 내가 방금 5-3작품의 도슨트를 듣고나서 “완료” 버튼을 눌렀더니 다시 1-1부터 뜨는 꼴이다. 그러면 다시 해당 화면을 쪽 스크롤하여 5-4번까지 직접 내려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더 보기”라는 버튼을 매번 눌러줘야 한다.) 이는 ②번 문제, 화면이 꺼져서 설명이 중지됐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설명이 강제로 종료되던, 설명을 다 듣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야 하던 매번 초기화된 화면에서 내가 찾던 순서를 찾아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의미 없는 아바타를 계속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바타 도슨트. 화면을 클릭하여 아바타를 배치하지 않으면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설명이 나오는 동안 화면과 카메라는 계속 켜둬야 한다

화면에 배치하 가며.

2-3. 더욱이 도슨트 화면의 구성은 전체 카메라 창과 함께 아바타 캐릭터가 있고 하단에 약 약 1cm 정도 높이로 언어 설명이 같이 표기된다. 내 핸드폰 기준으로 약 1cm는 꺾어야 두 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즉 도슨트가 진행되는 내내 음성을 듣지 않아도, 전체 설명을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두 줄씩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의미없는 카메라와 아바타를 띄워놓은 체로.

이는 단순히 글자가 적게 나온다는 넘어, 이어폰이 없거나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관객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4. 글로 설명하니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비유하면 전시 해설사가 설명을 해주다가 내가 눈을 깜빡였다고 로비로 돌아가 버렸다. 다시 설명을 들으려면 로비까지 찾아가서 해설사에게 설명을 부탁해야 한다. 가령 34번째 작품까지 설명을 들었다면 35번째

작품까지 전시해설사를 내가 대려 와야 한다. 그런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전시해설사가 다시 로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매 작품마다 반복된다. 무슨 빨짓거리인가.

이는 그저 개인의 불편함 정도가 아닌, 관람 자체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요인이다. 몇 시간 동안 수십 점의 작품을 관람하려 하는데 설명 한번 듣고자 몇 분씩, 화면을 몇 번씩 클릭해야 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십 년 전에 쓰던 아날로그 오디오 가이드도 다음 버튼만 누르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 기능은 있었다.

해당 업무 담당자, 비엔날레의 책임자는 이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하여 비엔날레를 관람해 보기는 했는가?

3. 이번 파빌리온은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홍보하지만, 그 늘린 만큼 동선도 너무 늘어났다. 일단 크게 양림동, ACC와 그 인근, 비엔날레관 인근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단언컨데 물리적으로 하루 안에는 전체를 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이번에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광주를 방문하였고, 대체로 그것을 타고 다녔음에도 파빌리온관 사이를 이동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많은 이동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대로 ACC관의 경우, 동남아시아 9개 관을 묶어 전시장의 일부를 할애하였는데 일종의 부스들로 이뤄진 구성이었다. 물론 당연히 천천히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 자체도 좋기야 하지만, 무엇보다 감상의 집중도가 끊기지 않아서 좋았다. 천천히 관람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조금만 뒤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각기 가지고 있는 국가적 매력의 서로 상응하는 것처럼 느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형 전시를 본 기분이었다.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당연히 외지인도 많이 방문할 것이다. 모든 파빌리온을 다 감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일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려고 할 것이다. 광주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려는 의도까지는 좋게 볼 수 있으나 이번 파빌리온은 동선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양림동에서 파빌리온을 돌기 시작한 아침, 어떤 외국인 관람객 한 일행도 비슷한 시간대에 투어를 시작하였다. 단순 관광객은 아닌 것 같았지만 나이도 있어 보였고 그중 한 명은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해 보였다. 그 일행들이 파빌리온을 돌기 위해 계속 걸었다 멈추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 안타까운 느낌이었다. 그들을 위한 대형 벤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아주 짧은 거리라도 타고 내리는 게 또 얼마나 고역이겠는가. 심지어 당시에는 날씨도 매우 더운 땡볕이었다.

내부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파빌리온 구성이 규모를 보여주기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작품 감상에 소요되는 시간이야 개인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심하면 한 공간에 작품 한 점을 보려 하는데 몇 십 분씩 걸어서 이동을 하고 그것을 몇 차례를 반복하고 나면 관람의 집중도 떨어질 데로 떨어지고, 그만큼 작품 관람의 컨디션도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파빌리온이 공간에 작품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기도 어



렵다. 감상하기에 좋은 작품도, 나쁜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하고 관객을 지치게 만들기 좋은 구성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2번 항에서 말한 것처럼, 총감독이 파빌리온 관을 전체적으로 순회라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졌다.

4. 전시 관람 중 휴식 공간이 전무한 것.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광비를 방문하며 항상 느끼던 것이었다. 광비는 건물 내부에 별도의 휴식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물론 건물 1층에 카페가 위치해 있지만 이는 건물을 나가서 다시 입구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이고, 티켓 검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빠져나가야 한다. 이것은 부산 비엔날레(부산현대미술관) 영종도 본관과 많이 비교되는 지점인데, 부비는 카페가 실내에 있어서 각 전시장에서 몇 걸음이면 바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또한 지하의 경우에도 가족 및 아이들을 배려한 벤치 및 관련된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비엔날레와 같은 규모있는 전시는 짬짬이 영상 작품 섹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 나름의 휴식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뿐더러 자칫 영상을 관람하고자 하는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길고 긴 전시, 많은 작품으로 항상 꽉꽉 채우느냐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노약자나 장애인 등 전시를 한 번에 관람하기 버거운 이들을 위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5. 개관 직후에 이벤트가 부재하다는 것도 아쉽다면 아쉬울 것이었다. 나는 올해 부비의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개관 첫 주라고 몇몇 퍼포먼스나 행사가 진행되었고 참여 가능했다. 특히 목판 인화 퍼포먼스\_공공예술에 참여하였는데 꽤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비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시 개관 직후 다소 미비할 수 있는 모습 같은 것도 덮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광비 또한 첫날, 첫 주말을 이용해 찾아간 것이다. 물론 예고된 행사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벤트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시를 보며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혹시 별도의 행사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 스태프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그런 것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양림동에서 커뮤니티 파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클로징한 내부자 파티였을까? 다음날 양림동을 지나가며 ‘커뮤니티 파티가 열립니다’라고 현수막으로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관계자만을 위한 커뮤니티인가, 조금 씁쓸하기는 하였다.

6.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다. 판소리라는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그럼에도 매우 좋게 보았던 작품들. 참고로 좋았던 작품만 치면 부비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나는 완강히 광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며, 그것이 총 책임자가 본 행사에 대한 태도이자 관객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넘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까지 표현하고픈 정도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비엔날레에 좋은 작품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꾸준히 찾는 이들은 꼭 광고를 보지 않고도 시기에 맞춰 찾아볼 정도로 나름의 전통과 인지도도 확실히 쌓아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사는 누군가만의, 특정 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 시스템부터 엉망이고 보여주기식 규모에만 치중한 기분이 다. 총책임자가 본 전시를 전체적으로 점검은 해보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이렇게 규모도 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모셨다”라는 광고를 사전부터 해대었기에 오히려 그 디테일과 내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덧. 기억에 남는 것은 비엔날레 본관에 들어설 때 우연히 누군가가 비엔날레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이다. 내용인즉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관의 참여를 비난하고 이를 주최한 비엔날레 측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이번 광비에서 제일 인상적인 모습이자 작금의 외침이라 생각한다. 🐱





표지이미지 :

광주 대인시장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야시장을 연다. 7년 전, 이 시장 안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도 야시장이 열렸으니 역사가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를 방문한 김에 들린 토요일 저녁의 대인시장은 여전히 야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쪽 둘러보니 예전에는 집집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메뉴들이 비슷해진 느낌이었다. 바로 석쇠로 굽는 닭발과 꼬막에 순대나 전 등을 곁들인 것인데 마치 무슨 닭발 골목 마냥, 골목 하나가 다 이렇게 팔고 있었다.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인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었다.

아무튼 닫힌 가게들 앞에서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옆 새주 한 병을 까고 먹는 꼬막은 크기도 무척 크고 살도 매우 두툼하였다. 사진상 접시가 작아 보이지만, 꼬막이 과장 조금 보태서 꼬마애 손바닥만큼 큰 것이다. 가격도 나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조개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정도 크기의 꼬막이라면 술안주로 나쁘지 않았다. 또한 이런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천 원짜리 종이컵 뽕데기는 숙소 돌아가는 길을 꽤 재미지게 만든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  
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  
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10, 스물여덟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화공간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마주, 오종원, X, 이채연